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담당 : AI시민행동 사무국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제 목 [보도협조요청]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날 짜 2026. 3. 30.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연대와 역량 강화 목표

일시 장소 : 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배치하면서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AI)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환경과 자원의 수탈,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기본법령과 정책을 요구해 왔음. 인공지능의 제 영역별로 관련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영역별 대응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노동자·지역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함.
- 시민사회는 지난 1월 8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공동의 의견서 제출과 수차례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각 부문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목표와 방향을 마련함. 이에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노동, 복지,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요 프로그램(안)
 - 발족 선언
 - 기조발언 : 인공지능 시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
 - 현안 발언 1 : 미국의 이란 침공과 인공지능 군사화의 문제
 - 현안 발언 2 : 자율주행차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으로 본 정보인권의 위기
 - 인공지능 확산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와 시민사회 대응
 - AI시민행동 활동 목표와 사업계획 발표
 - 발족 선언문 낭독
 - 인공지능 대응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AI시민행동 사무국(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AI시민행동 참가단체 현황

(사)김용균재단,(사)서울여성노동자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 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입법정책연구원,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시민건강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울산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직장갑질119,참여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캣츠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이상 40개 단체)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